

# 굳히기 vs 뒤집기...민주 경선 첫 승부처 기선잡기 사활

### 대전·충남 이어 세종·충북도 투표 4일·5일 발표 결과, 판세 풍향계 이재명 “밴드왜건 효과 과반 득표” 이낙연 “역전의 발판 만들어내겠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지역 순회 투표가 대전·충남에 이어 1일 세종·충북에서도 시작됐다. 특히 5일 세종·충북 합동연설회에서 개표되는 결과와 하루 전인 4일 발표되는 대전·충남 순회 투표 결과는 전체 판세의 풍향계가 될 전망이다. 이번 충청 지역 순회투표와 오는 12일 1차 슈퍼위크에 발표되는 1차 선거인단(약 70만명) 투표 결과가 사실상 분수령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충청은 대선의 ‘캐스팅보트’로 인식되는 지역인데다, 처음 공개되는 투표 결과인 만큼 향후 다른 지역의 경선 흐름까지 형성할 수 있다는 분석이 많다.

각 후보 진영에서는 판세를 각자 유리한 방향으로 분석하며 중원에서 바람을 불러일으키겠다고 자신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 측은 충청에서 과반 득표에 성공, ‘대세론’을 굳히겠다는 각오다. 조기 기선제압을 통해 결선 없는 후보 확정이라는 목표에 다가간다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약세인 대전에서도 이 전 대표에게 근소한 우위를 보이고 있고, 나머지 충남·북 지역에서는 두 자릿수 이상의 격차로 앞선다는 것이 내부 평가다.

캠프 관계자는 “50% 안팎의 득표를 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며 “조직표의 영향이 있어 절반에 조금 못 미칠 수도 있지만, 바닥 정서에 ‘될 사람 뽑는다’는 밴드왜건 효과가 더해지면 과반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반면 이 전 대표 측은 조직력을 앞세워 여론조사와는 다른 결과를 낼 수 있다고 분석한다. 충청에서 예상보다 선전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반이재명 표심을 결집해 역전의 발판을 만들어내겠다는 전략이다. 캠프 관계자는 “충청에서 오차범위 내의 결론이 날 것”이라며 “그러면 분위기가 많이 달라질 것이라고 본다”고 전했다.

다른 주자들도 충청 민심을 상위권 진입의 교두보로 삼겠다는 각오다. 정세균 전 총리 캠프 관계자는 “여론조사 흐름과는 달리 권리당원 사이에서 이재명·이낙연 후보에 대한 피로감 같은 것이 확연히 보인다”며 “바닥에서 반향을 일으켜 최소한 선두권 후보를 위협하는 수준의 득표를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까지 여론조사 등을 보면 전반적으로 ‘양강’ 가운데 이재명 경기지사가 우위를 보이지만 격차는 조사기관에 따라 차이가 크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달 23~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2015명에게 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에 ±2.2%포인트)를 보면 대전·세종·충청 지역의 민주당 대선 후보 적합도는 이 지사 25.5%, 이낙연 전 대표 23.1%로 집계됐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달 16~18일 1010명에게 진행한 조사(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에서는 진보진영 대선후보 적합도를 묻는 질문에 이 지사가 28%, 이 전 대표가 20%의 지지를 대전·세종·충청 지역에서 받았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달 27~28일 전국 1015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에서는 범 진보권의 차기 대선 후보로 이 지역의 33.9%가 이 지사를, 13.9%가 이 전 대표를 선택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 및 최고위원들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 앞서 20대 대통령 선거 경선 3차 국민선거인단 모임을 둘러하고 있다. /연합뉴스

## 언론중재법 ‘8인 협의체’에 與 김종민·김용민 野 최형두·전주혜

### 원점 재검토 놓고 날선 신경전

여야가 1일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8인 협의체’ 구성을 본격화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한병도·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 김종민·김용민 의원, 국민의힘 최형두·전주혜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고 국회 회동 후 밝혔다. 여야 모두 언론인 출신과 울산 출신 인사가 1명씩 참여하는 구도로, 한 달이 채 안되는 시한부 활동 기간 ‘장과 방패’의 화력 대결을 예고하고 있다. 재선의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언론인 출신으로 노무현 정부의 청와대 대변인을 지냈다. 변호사 출신의 김용민 의원은 최고위원이자 당내 미디어특위위원장으로 언론중재법 처리를 주도해왔다. 두 의원 모두 강경 진문 성향으로 분

류된다.

국민의힘 초선인 최형두 의원 역시 언론인 출신 문제위원으로, 문제위에서 꾸준히 언론중재법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내 왔다. 역시 초선인 전주혜 의원은 판사 출신으로 법사위에서 활동해왔다.

양당은 각 당 2명씩 총 4명을 선임하는 외부 위원도 곧 인선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나 참여연대, 민연련 등 언론개혁 취지에 공감하는 단체 인사를, 국민의힘은 언론중재법에 반대해온 언론계 인사를 위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8인 협의체’는 지난달 31일 양당 원내대표 합의에 따라 구성되며, 오는 26일까지 언론중재법과 관련한 논의를 하게 된다. 협의체에서는 의한 언론중재법 합의안은 오는 27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논의할 시간이 한정돼 있지만 여야의 의견 차이가 커 격론이 예상된다. 이날도 언론중재법의 원점 재검토 여부나 ‘협의체’의 논의 범위·권한 등을 두고도 여야간에 미묘한 시각차가 드러났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수석 회동 후 국민의힘 일각의 ‘원점 재논의’ 주장에 대해 “법사위를 통과한 안이 있고, 야당이 준비한(수정)안도 있다. (이런 안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하는 것이다.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왕 언론중재법의 쟁점 사항을 논의·협의하는 과정이 지나 중립적으로 제기됐던 사항은 다 같이 논의하며 정리하게 될 것”이라며 원점 재검토 필요성을 시사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靑 “수술실 CCTV법 성숙한 입법 사례” “구글 갑질 방지법, 모바일 생태계 발전”

청와대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1일 브리핑을 통해 수술실 CCTV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 “이해당사자와 여야, 정부가 공론의 장에서 토론을 거쳐 합의에 이른 것으로 우리 사회의 성숙한 입법 과정을 보여준 사례로 평가한다”며 “정부는 법률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국회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기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하면 수술 장면을 촬영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대리 수술이나 의료사고 방지를 위해 CCTV 설치를 주장하는 환자단체와 의료행위 위축을 우려하며 반대하는 의료계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면서 발의 후 6년 7개월간 표류하다가 통과됐다.

박 수석은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으로 불린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통과에는 “콘텐츠 창작자

의 정당한 수익을 보장하고 모바일 생태계가 보다 발전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군성범죄를 처음부터 민간 수사기관과 법원이 수사·재판하도록 한 군사법원법 개정안에는 “군성범죄 근절을 위한 전기를 마련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아울러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통과에는 “전 세계에서 14번째로 2050 탄소중립 비전을 법제화한 것으로, 탄소중립 사회로 가기 위한 첫 입법적 성과를 거둔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중대한 의미가 있다”고 환영했다.

청와대가 국회를 통과한 다수 법안을 두고 별도로 의견을 밝히는 것은 이례적으로 임기 마지막 정기국회를 앞두고 국회과제 법안 처리 들어 있어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당부하는 뜻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 광주시, 군공항 이전 특별법 등 20개 중점사업 대선공약 제안

### 달빛내륙철도 등 4대 핵심 과제

광주시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대비해 후보들에게 공약으로 제안할 8대 분야, 20개 중점사업을 1일 발표했다. 지난달 17일 1차로 선정된 12대 과제, 75개 세부 사업을 압축한 것이다.

8대 분야는 광주 군공항 이전, 인공지능 대표도시 광주, 지역 균형 발전과 광역경제권 구축, 미래 지역 전략산업 고도화 기반 확대, 초지능형 헬스 테크 시티 인프라 마련, 문화 수도 광주, 그린뉴딜 도시 모델 구현, 민주·인권·평화 도시 구현이다.

20대 중점사업은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제정 ▲군공항 이전 중전 부지 그린스마트시티 조성 ▲광주 인공지능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 ▲AI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 ▲AI 메타버스 융

합산업 육성 등이다. 또 ▲광주-대구 달빛고속철도 임기 내 조기 착공 ▲광주와 인근도시 ‘빛고을 스마트 메가시티’ 조성 ▲조광역 국가 고차기장 연구소 구축 ▲빛그린 산단 일원 ‘미래자동차 융합 스마트 그린산단’ 조성 ▲지능형 공기 신산업 특화단지 조성도 중점사업에 선정됐다.

이와 함께 ▲국가김치문화산업단지 조성 ▲호남권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광주시의료원 설립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완성 ▲아시아 문화콘텐츠 허브시티 조성 ▲2038 광주대우 하계 아시안게임 공동 유치 사업도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광주 아시아 예술 전용극장(가칭) 건립 ▲호남 에너지 밸리 구축(RE300) ▲광주천 아리랑 문화물길 조성 ▲민주인권기념파크 국가사업 추

진 등도 대선공약으로 제안됐다.

시는 이들 사업 가운데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제정, 광주 인공지능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 광주-대구 달빛고속철도 임기 내 조기 착공, 조광역 국가 고차기장 연구소 구축을 4대 핵심 과제로 지정하고, 대선 공약 반영에 집중하기로 했다.

시는 또 광주와 인근 전남·사군을 아우르는 빛고을 스마트 메가시티 조성, 친환경 차·첨단 의료·신재생 에너지 등도 미래 100년을 책임질 전략산업 육성에 방점을 두고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광주시는 20개 중점사업을 각 정당과 후보에게 제시하고, 최종 대선 후보 공약과 차기 정부 국정 과제에 반영되도록 힘을 계획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아파트, 빌라, 원룸, 주택, 상가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 옥상) 시공

**옥상지붕공사**  
슬라브 주택, 데스리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광주·전남 같이 하실분 모십니다. (062)531-3530, H. 010-9229-3530

소상공인 공동브랜드 k.tag 전국100개 인증업체선정

#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광주전남 기능장 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상장표창

특수가발 별매 (윈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기술. 1만명 이상 내공 매주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H.M사 동급제품 130만원  
**59만원~**

광주 남구 주월동 1199-12 라인가든아파트 상가 2층(대광여고 옆)  
**062.673.5858 (모발모발)**